



“광주 오월정신 본받고 싶어 ... 조국 가면 널리 알리겠다”

5·18민주묘지 팸투어 다녀온 외국 선수단

“조국에 돌아가면 광주의 오월 민주정신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광주U대회 선수촌에서 파나마(3명)·브라질(5명)·우크라이나(3명) 선수·임원진 11명으로 구성된 팸투어 팀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5·18 정신을 직접 보기 위해 조직위에서 마련한 관광코스 12개 가운데 5·18민주묘지 코스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설사 김용철(60)씨의 안내에 귀 기울이면서 묘비에 새겨진 희생자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당시 몇 살이었나”, “안장된 묘역은 총 몇 곳이나”며 호기심과 놀라움 속에 질문을 이어갔다.

이들 일부는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희생된 영령을 기렸다. 1980년 5월 당시 사망자만 170여 명에 달했다는 해설사의 설명에 선수단은 ‘충격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묘역과 기념비를 일일이 사진으로 남긴 브라질 선수단 임원 로베르토 고메스(45)

묘비 손으로 쓰다듬으며

희생된 영령 기려

광주시민 5·18에 대해

관심 각별한 것 느꼈다

는 “브라질에도 ‘산토 아마로’라는 국립 묘지가 있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찾는 광주시민의 경우와는 대조된다”고 소개하며 “광주시민이 5·18에 대해 갖는 애정과 관심이 각별한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답사에 참가한 파나마 육상 선수 앤드류 모간(19)은 “5·18 이 20세기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현재 중미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파나마는 지난 1989년 미국의 침공을 겪은 아픈 역사가 있다. 앤드류는 민주·평화의 위기를 맞을수록 시민이



지난 11일 오전 광주U대회 파나마, 브라질, 우크라이나 선수·임원진이 광주시 북구 운동국립 5·18민주묘지를 둘러보고 있다.

협동해 이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은 것은 파나마와 광주의 비슷한 면모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양궁 선수 블라드 볼세코브(19)는 민주·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싸운 역사에는 항상 청년의 희생이 따랐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동부지역 내

전으로 경기 침체까지 겪고 있어 청년의 고통은 더 심하다는 게 블라드의 설명이다. 그는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을수록 우리 스포츠인들은 국민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보여주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백희준기자 bhj@



송원초, 역경 극복 선수 초청 운동용품 전달

학생들에 도전 정신 심어준

알티모스·포르테에 옷·신발

감독도 코치도 없이 홀로 U대회에 출전한 아이티의 태권정년, 운동화 살 돈이 없어 찢어진 운동화를 기워 신고 된 바베이도스 육상 선수(광주일보 7일자 1면)가 광주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향한 도전 정신을 심어줬다. 학생들은 이들 선수의 용기있는 도전에 감동, 평소 모아둔 성금으로 운동용품을 구입해 전달했다. 광주송원초등학교(교장 신명순)는 지난 10일 가난과 질병 등 역경을 딛고 광주U대회에 참가한 아이티 태권정년 알티모스와 바베이도스 육상선수 포르테를 초청해 태권도 교실과 사

인회를 열었다.

알티모스는 이 학교 태권도부 학생들을 지도하며 정을 나눴다. 학생들은 감사의 뜻으로 알티모스가 고국에 돌아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태권도복 30벌과 신발, 호구 등 태권도용품을 구입해 전달했다. 궤면 신발로 투혼을 발휘해 육상 200m 2라운드에 진출한 포르테는 사인회를 열어 학생들에게 ‘꿈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을 새겨줬다.

행사에 참여한 임찬호 군은 “우리들이 모은 사랑의 성금이 이렇게 뜻깊은 일에 쓰여 보람됐다”며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도전을 배웠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백희준기자 jwpark@

도전정신은 금메달 감 ... 끈기와 저력 보여준 ‘아름다운 꼴찌들’

한국 수구 전패 불구

도쿄올림픽 자신감 키워

짐바브웨 골프 묘모 등

큰 점수차 패배에도 최선

광주U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금메달리스트보다 더 아름다운 ‘꼴찌’들에게 보내는 갈채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젊은 대학생들의 축제답게 성적과 기록은 형편없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도전정신이 빛나고 있어서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생소하고 비인기 종목인 ‘수구’(水球). 한국은 이번 대회에 안기수(55) 감독을 필두로 6개월의 훈련 끝에 13명의 선수들을 출전시켰다. 하지만, 수구 강국들과 맞붙어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지난 2일 A조 예선 첫 경기에서 호주를 상대로 3대 14로 대패한 뒤 프랑스(9대 14), 이탈리아(5대 13), 브라질(7대 11), 네덜란드(5대 24), 헝가리(2대 15)에 압도적인 점수차로 내리쓴 맛을 봐야했다.

하지만 한국 수구 대표팀은 유럽의 강호들과 맞붙으면서 오는 2019년 광주세계수



지난 10일 광주시 서구 염주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수구 종목 대한민국과 헝가리의 A조 예선에서 대한민국이 헝가리에 2-15로 패했다. 흰색 수영모를 쓴 한국선수가 공격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영선수권대회와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카리브해 최대 빈국 아이티에서 ‘나홀로’ 참가한 태권도 알티모스(26) 선수도 세계태권도연맹(WTF)이 예외 규정을 적용, 지진의 아픔을 공유한 네덜란드 태권도 감독의 지도 아래 지난 10일 첫 경기에 나섰다. 11대 24라는 큰 점수차로 패배를 겪었다. 또 국제대회에서 ‘노메달 국가’라는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매번 선

수단을 파견하고 있는 부탄의 태권도와 탁구 선수 8명 모두 첫 경기에서 확연한 실력차를 보이며 완패를 당하기도 했다.

골프에 출전한 짐바브웨 시탄다질레 모요(여·25) 선수도 1라운드에서 100오버파 172타를 쳐 선두(4언더파)와 무려 104타 차이를 보였다. 이후 2라운드 84오버파 156타(선두 5언더파 67타), 3라운드 85오버파 157타(선두 4언더파 68타)를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수리남 육상 간판선수인 토메레(여·24)도 육상 여자 1만m에 출전했으나 1위인 러시아 쿠리야티아(여·25)의 기록보다 무려 11분33초가 늦은 44분25초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쿠리야티아 선수가 결승전을 통과한 뒤에도 무려 5바퀴를 남겨뒀던 그녀는 폭우 속에도 최선을 다해 완주,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기도 했다.

/*특별취재단=박기용기자 pboxer@

U대회 이모저모

박주선 교문위원장, U대회 한국 선수단 방문 격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지난 10일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 참가 중인 한국 선수단을 방문해 선수와 임원들을 격려하고 한국 선수단이 이번 대회 성공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일 위원장 취임 이후 첫 외부 행사로 하계유니버시아드 한국 선수단 본부를 찾은 박 위원장은 “우리 선수단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훈련과 경기에 임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박 위원장은 육상 김국영, 펜싱 송승훈, 태권도 배종범과 양한솔 등 선수들과 지도자 최태석 교수(펜싱·한국체대), 박은석 감독(태권도·한중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뒤 유병진 선수단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박기용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교회권사단, 자원봉사자에 아침식사 제공

광주U대회 대학생 자원봉사자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기독교인들의 선행이 알려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12일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교회 권사·집사들의 기도 모임인 교회권사단은 지난 3일부터 서구 화정동 선수촌에서 대학생 270명의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있다.

54명으로 구성된 교회권사단은 순번을 정해 매일 아침 6시께 김밥 280줄과

음료 등을 준비해 일정에 쫓겨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건네고 있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서금자(60)씨는 “전국에서 모여든 대학생들이 호남대 기숙사에서 자고 봉사를 위해 선수촌으로 오는데 식사시간대가 맞질 않아 아침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김밥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박기용기자 pboxer@



레이저백내장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현저히 높은 최첨단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입니다. 3D OCT가 탑재된 펄스레이저를 사용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오차 없는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무출혈 / 무통증 / 무봉합 / 무입원이 가능하며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백원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아이소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사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062)368-1700